

[탈레반, 한국인 인질 1명 살해]

탈레반 “요구 안들어주면 추가 살해”

■ 나머지 인질들 어떻게 되나

포로 석방·금전 확보 ‘실리 쟁기기’ 요구 커질 듯

아프간 정부 맞교환 수용 않을 땐 추가 희생 우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23명을 납치한 탈레반 무장세력이 납치 일주일째인 25일 1명을 살해함에 따라 나머지 인질들이 과연 무사히 석방될 수 있을 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탈레반측은 24일 아프간측에 불잡힌 탈레반 포로 8명과 한국인 인질 8명의 맞교환을 카드로 떠웠으나 아프간측의 완강한 태도로 이 카드가 잘 먹혀들지 않아 인질의 일부를 풀어주면서 1명을 살해하는 극단적 선택을 취하고 나섰다.

그간 되풀이돼온 탈레반측의 ‘살해 위협’이 기이하게 현실화된 것이다. 탈레반 대변인을 자처하는 카리 유수프 아마디는 아프간 정부가 탈레반 포로를 석방하지 않아 인질 23명 중 1명을 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프간 정부가 우리 요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인질 한 명을 총으로 죽였다”며 “앞으로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추가로 살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마디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나머지 인질들의 생사는 결코 장담할 수 없는 협곡으로 몰렸다고 볼 수 있다. 외신들이 전한 것처럼 탈레반측은 이번 한국인 인질 대량 납치를 서방 군대의 철수와 포로의 맞교환, 금전 확보 등 다각적 국면에서 실리를 쟁기기 위한 계기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탈레반측이 아프간 정부로부터 거액을 건네받은 시점에 인질의 일부를 풀어주고 1명을 살해한 것은 금전적 이득이라는 실리를 일단 행간마다 향후 협상에서 인질의 추가 살해를 위협으로써 포로 또는 추가 금전을 건네받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향후 탈레반의 의도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추가 살해의 책임은 자신들이 아닌 아프간과 한국 정부측에 있다고 떠넘기려는 속셈도 읽

힌다.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협상의 승부처라고 할 수 있다. 탈레반은 향후 협상에서도 지금 까지처럼 포로와 인질의 맞교환을 강력히 관철하면서 추가 금전을 쟁기려 들 가능성이 높다. 탈레반이 요구하는 인질의 봄값은 더욱 치솟을 것으로 관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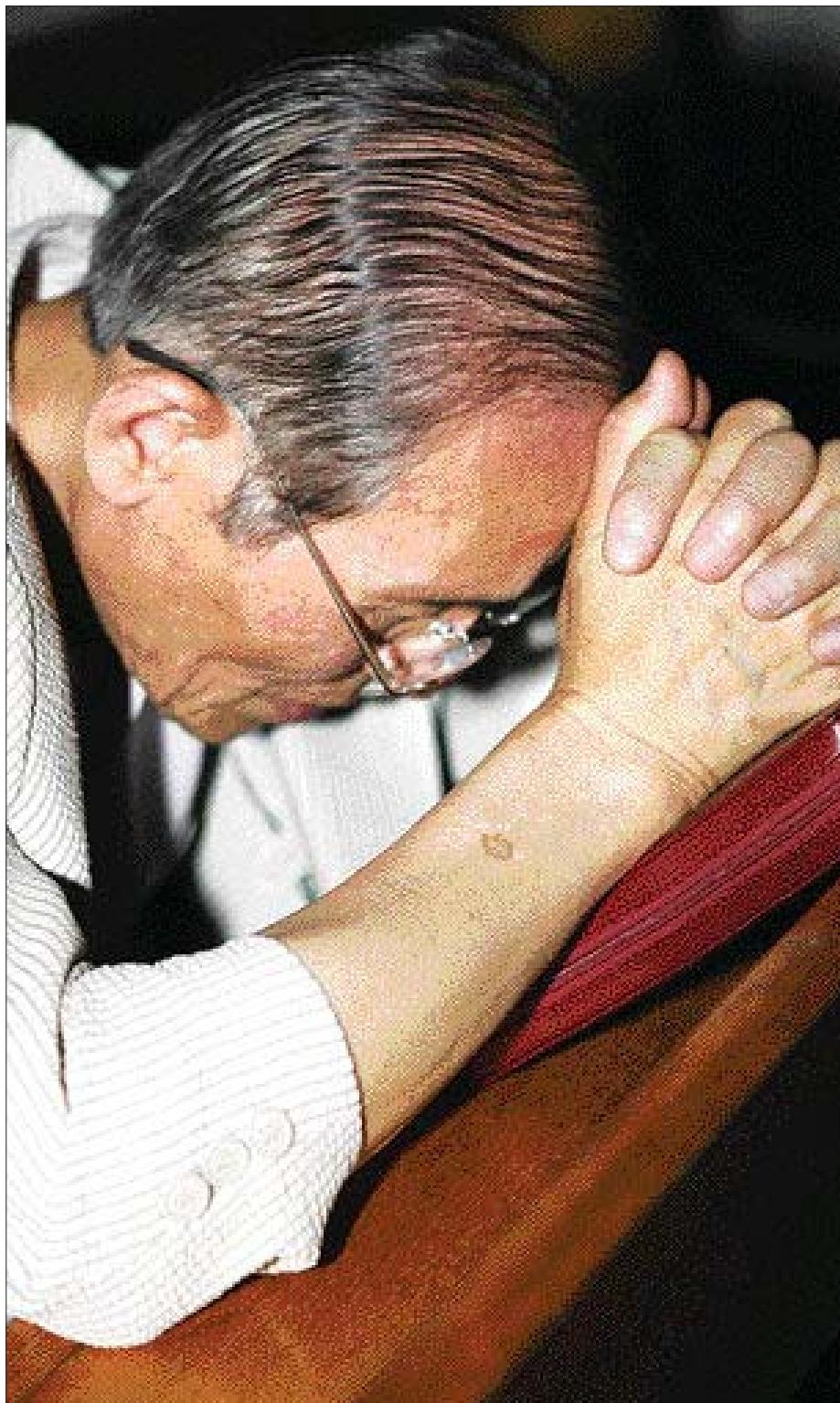
“죄수를 인질들과 맞교환하지 않는다”는 아프간 정부의 완강한 태도로 한국인 인질들의 무사 석방에 걸림돌로 남아 있다. 아프간 외무부의 솔тан 암마드 바란 대변인은 24일 탈레반의 맞교환 요구에 대한 외신의 질의에 “죄수를 인질들과 맞교환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입장은 종전과 같다”며 부정적 입장은 분명히 했다. 이런 입장이 바뀌었다는 소식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다.

일부 관측들은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간 협상이 일부에서는 진전을 이뤘으나 타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석방과 살해가 함께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탈레반 내부 탓에 지역별로 흩어진 무장세력들이 지휘통제력이 느슨한 상태라는 복잡한 이해관계와 자체 사정 등으로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독일 dpa 통신 등이 인질들이 3곳에 분산, 수용돼 있다고 전한 것도 인질들을 억류한 세력이 단일 지휘통제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추측을 낳게 한다. 탈레반 대변인은 자처하면서 외신과의 선전전을 통해 줄곧 강경입장을 전명해온 아마디의 경우 포로 맞교환을 요구하는 내부 강경파를 대변하는 반면 봄값을 받고 일부 인질들을 석방한 세력은 그와는 다른 지휘통제이라는 분석도 있다.

사실상 사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아프간측이 포로 맞교환을 전격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 희생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연합뉴스



25일 밤 탈레반에 납치됐다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배형규 목사의 아버지인 배호중 영락교회 장로가 소식을 접한 뒤 교회에 나가 성경을 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 탈레반 극단적 선택 왜?

협상 진전됐지만 핵심사안 틀어졌을 가능성

고고도의 협상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다.

즉, 의도적 살해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인질이 죽는 상황을 피하면서 뱃발치는 비난 여론에 대응해 어느 정도 명분도 쓸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23명의 대규모 인물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레반은 여성 인질의 석방이란 카드를 내세우면서 한국인 인질 1명을 살해하는 양면 작전을 펼쳤다는 주론이 가능하다. 이를 두

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탈레반 대변인을 자처하는 카리 유수프 아마디가 납체세력 자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인 인질들이 3~7곳에 분산 수용된 것도 납체세력의 성격이 분분해 생긴 일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연합뉴스

샘물교회 청년회 담임목사 봉사활동 선도

■ 피살 배형규 목사는 누구

25일 탈레반 무장단체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배형규(42) 목사는 이번 한민족복지재단 아프간 봉사단의 단장으로 지난 13일 19명의 샘물교회 청년회 회원들을 이끌고 아프간 칸다하르로 봉사활동을 떠났었다.

교회 부목사와 청년회 담임 목사를 겸하고 있는 배 목사는 “평소 청년회 회원 300여명의 기도 제복을 일일이 살펴줄 정도로 자상해 특히 따르는 교인들이 많았다”고 그를 아끼던 교인들은 입을 모았다.

제주도 출신으로 제주제일중학교와 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한양대와 서강대대학원을 졸업, 회사에 취업했으나 곧 그만두고 신학대학에 진학해 목회자로의 삶을 시작했다.

신학대학을 졸업한 뒤 박은조 담임목사와 영동교회에서 수년간 몸담아오다 1998년 박 목사와 함께 샘물교회의 창

립에 참여했다.

신학대학 시절부터 특히 청년사역에 관심이 많아 청년회 담임목사를 맡아 20~30대 청년회 회원들과 함께 매년 봉사활동을 떠나 정도로 왕성한 외부 활동을 펼쳐왔으나 “외지에서는 음식을 잘 못먹고 소화가 잘 안되는 등 지병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교인들은 전했다.

배 목사는 지난 4월 방글라데시 봉사 활동을 다녀왔으며 이번 아프간 봉사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는 올해 안에 다시 아프리카 봉사활동을 떠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모교회 배목(72) 장로 부부의 2남2녀 중 차남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주택에서 부인과 딸(9)과 함께 살고 있다.

가족들은 배 목사가 납치된 뒤 제주도 본가에 내려가 부모형제와 함께 무사귀환을 기원하고 있던 중 비보를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제발 오보이길...” 샘물교회 눈물바다

한민족복지재단 가족들 혼란...충격

아프간 탈레반 무장단체에 납치된 한국인 인질 중 한 명이 살해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당 샘물교회 주변은 일대 혼란 속에 눈물바다로 변했다.

이날 오후 8시께부터 교회 2층 분당

에 모여 석방을 기원하던 신도 1천여명은 오후 10시께 인질 중 한 명이 살해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본당을 나오면서 “안돼, 안돼”라고 소리치며 울음을 터뜨려 교회 안팎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또 일부는 “아직 외신보도만 있다”는 말을 전해들고 “제발 오보였으면 좋겠다”며 여기저기 확인 전화하거나 부신한 모습을 보였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교회 빌딩에 들어와 뉴스속보를 보면서 얼굴을 감싸고 오열하기도 했다.

6개월으로 나눠 피랍사례를 지원하는 교회 사무실 대책반에서도 남자 인질 한 명을 살해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동안 밤샘을 하며 상황을 지켜보던 간사들이 책상을 얼굴에 묻고 울먹이는 등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교회 대책반 관계자는 “현재로선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며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한편 탈레반에 피살된 것으로 알려진 배형규(42) 목사의 교회 주변 집에는 처남 가족만 집을 지키고 있으며 처남은 취재진의 질문에 놀란 얼굴을 하면서 “더 이상 얘기할게 없다”며 문을 닫았다. /연합뉴스

세계 최장기 공연에 빛나는 감동의 신화
브로드웨이 오리지널팀 뮤지컬 갯츠 내한공연!



CATS



2007. 9. 7 (화) ~ 16 (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티켓팅 062-220-0541, 1588-0766

주최: 광주일보 KCTV

주관: 광주문화예술회관

후원: 광주광역시

문의: 062-220-0541, 1588-0766